

2015 년 11 월 15 일 주일 예배 “야고보서(4) 자유롭게 하는 말씀” (약 1:19-27)

<도입>

어떤 영역에서든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삶과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 됨'(아들 됨, 아빠 됨, 목사 됨)의 길을 가고 '너의 너 됨'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내적 자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겐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바르고 온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1] 듣는 존재로 지어주심 - 먼저 듣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살면서 진정한 신앙과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들음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바른 것을 깊이 들을 때 영혼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치유하며, 확장/발전시키고, 이어서 기쁨이 솟고, 더 나아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는 더디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성내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소화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내적 갈등과 혼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각오하면서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나의 나 됨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길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8 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 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참고. 율법 = 옛 구약 언약 X, 주님의 말씀이다.

[2] 들려진 말씀이 자유로 향하게!

- 21 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 성냄과 반대; 배워 습득하겠다는 자세. 백을 받을 때 백 만큼 열매 맺을 수 있는 성품과 능력 → 이에 가까운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표지)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정의, 즉, 온전한 지식을 받음(이성적 기능), 확정된 의지, 진정한 열정의 통합으로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와 진리의 세계로 들어나는 과정이 따라야 합니다.

**(1) 온전한 지식을 듣고 받는 이성적 습득의 과정.** 여기서 온유함이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세상의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에는 관련이 없고,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면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인도받습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 한 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경탄과 경이로움**이 일어납니다. 인간 지성이 하는 일입니다.

**(2) 확정된 의지.** 사람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갈팡질팡하면 그 상황은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갈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한 길을 택해서 가보려는 **결단과 실행**이 없으면 자기 자리에 늘 정체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가려면 확정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3) 감정의 고저는 자유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됩니다.** 감정의 고저는 **진지한 열정**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열정은 의미와 가치를 반복적으로 찾고 발견하지 않고는 생길 수 없습니다. 열정은 감정의 고저에 상관없이 나의 삶을 가꾸고 전진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4) 지금까지 말씀 드린 지식과 의지가 이 진지한 열정 안에서 합쳐질 때 더욱 자유를 향한 날개를 짓게 합니다.** 결국 자신의 성을 벗어나 진정한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화 “Copying Beethoven” 남녀 주인공들의 삶의 방식과 방향에 착안하면서 살펴봅시다(감상 추천).

Anna Holtz 가 형식적 고전주의를 넘어 낭만주의라는 신세계를 추구하며 가는 길에서 위에 언급한 네 요소를 포함합니다. 사람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주는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악과 같은

특정분야뿐 아니라, 삶과 관계 속에서 새롭게 열릴 **교제와 사권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제와 사권은 장차 새롭게 열릴 과정이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궁극적 새로운 세계를 들려주고 보여주실 때 새 세계를 향해 걸으면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행하는 지정의 행위는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은 누구도 자유의 온전한 궁극적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과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의 길을 걷는 과정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을 듣고 얻어 의지와 열정으로 나의 세계는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약속의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맺음> 말씀은 보물섬으로 인도하는 지도와 같으며 그 섬을 향하게 하는 힘도 지닙니다. 지도는 지식을 제공하고, 열정을 갖게 하며, 결단과 실행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믿음의 시련을 싸워 이기며, 상과 면류관의 유업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에 초점을 기울이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삶을 부유케 하는 풍성한 유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2015 년 11 월 15 일 주일 예배 “야고보서(4) 자유롭게 하는 말씀” (약 1:19-27)

**<도입 질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가 누릴 축복으로서 자유를 언급합니다(참고. 갈 5:1, 요 8:32 등). 내가 생각했던 자유(또는 자유의 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자유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니까? 만일 달랐다면 어떤 면에서 달랐는지 말씀해 보세요.

1. 성경이 언급하는 자유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죄와 싸워 이겨서 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조건 아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공동체적으로는 나의 대상을 깊이 앎(이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됨 위에 진정한 기쁨과 활력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이번 주 설교를 통해 다룬 이성적, 의지적, 감정적 측면에 있어서 내가 더 가꾸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후손들을 어떻게 이끌어주어야 하겠습니까?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듣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열의 말씀을 들었다면 열의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대해 성내지 않고 온유한 성품을 갖추도록 합시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함은 바로 온유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마 11:29 참고).

